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4. 3. 5.(화) / 총 5매 (본문 3, 별첨 2)	
자료 제공	• 경제전략연구본부 - 김민수 본부장 (051-797-4789, guan72@kmi.re.kr) - 채수란 전문연구원(051-797-4790), 박예나 전문연구원(051-797-4763)	
배포 부서	•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051-797-4381, 4396)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해양바이오 산업이 주도하는 미래 초격차 성장 가능성 모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제5차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 개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부산일보와 공동으로 3월 5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홀에서 「제5차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을 개최했다.

2022년 시작된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은 신정부의 '초격차' 국정과제*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초격차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정과제 24) 미래전략산업의 **초(超)격차** 확보, (국정과제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제1차 초격차 포럼(2022.6.29): 초격차,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
제2차 초격차 포럼(2023.1.26): 우주와 해양의 소통
제3차 초격차 포럼(2023.6.26):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First Korea
제4차 초격차 포럼(2023.11.20): 미래 선박 초격차 시대와 과제

개회식에는 포럼의 공동의장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을 비롯해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규열 포항공과대학 교학부총장 등 해양바이오산업 산·학·연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장제국 공동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해양바이오산업은 예상하기 어려운 미래

질병,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자원 부족, 기후 위기에 따른 생태계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을 통해 한국의 해양바이오산업을 진단하고 미래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이해해, 우리나라 중점 전략산업이 되도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기조강연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 정규열 교학부총장이 '해양바이오 산업 초격차 성장 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연을 통해 "탈탄소 시대에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바이오매스가 떠오른다며, 식물자원은 공급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차세대 바이오화학 산업의 원료로 해조류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갈조류 균주 개량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해조류 대량 양식을 통해 이를 자원화한다면 미래 해양바이오 산업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종덕 KMI 원장이 패널 토론 좌장을 맡아 해양수산 분야 초격차 혁신성장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 패널로는 김근용 아쿠아진텍(주) 대표, 김호준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주) 박사, 이배진 ㈜마린바이오프로세스 대표,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장, 조만기 동서대학교 교수, 그리고 기조강연을 맡은 정규열 포항공과대학 교학부총장이 참여했다.

김근용 아쿠아진텍(주) 대표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이기 위해서는 해조류와 미세조류를 탄소흡수, 어업자원 보호·회복은 물론 식품, 사료, 화장품, 의약품, 바이오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해 기후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조류양식과 미세조류 배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쿠아진텍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준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주) 박사는 "해양생물은 육상생물에 비해 연구 결과가 다양하지 않아 연구 가치는 충분하지만, 해양바이오 스타트업의 특성상

단기간 매출을 발생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산·학·연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수급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배진 ㈜마린바이오프로세스 대표는 "최근 한류의 붐을 타고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K-FISH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지원제도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K-FISH 확장을 위해 해양생물유래 건강기능식품을 한국의 높은 기술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장덕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부장은 "글로벌 해양바이오산업 시장은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시장도 이러한 흐름 속에 가파르게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양바이오 분야의 공격적 사업화 전략을 통해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외와 다르게 기업이 아닌 대학·연구소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어서 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만기 동서대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해양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해양바이오센터 건립과 수산 부산물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수산생물자원은 고부가가치의 식·의약 소재라며 세계적으로 승인된 바다약품을 소개하는 한편, 바다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배하는 미생물, 특히 무척추동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덕 KMI 원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바이오산업 가능성은 매우 크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초격차 사례를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에 참고하기 위해 체계적 노력을 계속하겠다. 나아가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이 해양수산 글로벌 초격차 기업이 탄생하는데 기여하는 소통의 장(場)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채수란 전문연구원(051-797-4790) <9orchid7@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초격차포럼 사진(JPG 별도 송부)

<붙임2> 프로그램

제5차
해양수산 초격차 포럼
〈해양바이오 초격차 성장 구상〉

삼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이 주도하는 미래 해양경제 초격차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초격차포럼은 미래 질병, 식량 자원부족, 환경오염 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자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 연구, 현장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장

동서대학교 총장	부산일보 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제국	김진수	김종덕

일시 2024년 3월 5일 (화) 오전 6시 30분 (조찬행사) **장소** 부산 롯데호텔 에메랄드홀 41층

시간	차례	주요내용
6:30~6:50	등록 및 환담	참석자 등록
6:50~7:20	조 찬	
7:20~7:30	포럼 개회	• 국민의례 • 주요 내빈소개 • 개회사
7:30~8:20	기조 발제	"해양바이오 산업 초격차 성장 구상" • 정규열 교학부총장, 포항공과대학교
8:20~9:00	패널토론	좌장 :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김근용 대표, 아쿠아진텍(주) • 김호준 박사,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주) • 이배진 대표, (주)마린바이오프로세스 • 장덕희 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부 • 조만기 교수, 동서대학교 바이오제약공학과
9:00~9:20	Q&A	질의응답
9:20	폐 회	폐회 및 참석자 전원 사진촬영